

반고 1천537개, 특수목적고 148개, 특성화고 498개, 자율고 161개교가 있다.

학생 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65년 25만4천95명에서 1990년 147만3천155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전문계고는 1965년 17만2천436명에서 2010년 46만6천29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학생 수는 일반고 127만8천8명, 특목고 6만7천529명, 특성화고 30만2천21명, 자율고 14만708명이다.

일반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7천894명에서 2010년 9만735명으로 늘었고 전문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6천214명에서 2010년 3만5천688명으로 늘었다. 2015년은 일반고 9만878명, 특목고 7천245명, 특성화고 2만6천588명, 자율고 10만288명이다.

## 고등교육

### ■ 전문대학

전문대학 수는 1965년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교로 증가했고, 이후 199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에 161개까지로 늘어났다. 이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현재 138개교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965년 2만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 16만5천5명, 2003년 92만5천96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학생 수 감소 및 4년제 대학의 선호로 2009년 76만929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전문대 학생 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72만466명으로 떨어졌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57.5%였다가 1970년 72.6%로 높아졌으나 1975년부터 1985년 사이 감소추세를 보여 50~6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86.5%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에는 61.4% 수준이 됐다.

### ■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80년 100개교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89개교가 됐다. 국·공립 대학교가 1965년 14개교에서 2015년 35개교로 늘었고, 사립대학교는 1965년 56개교에서 2015년 154개교로 증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학생 수는 1965년 10만5천64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104만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06만5천451명, 2012년 210만3천958명, 2013년은 212만296명, 2014년 213만46명, 2015년 211만3천293명이 됐다.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05년 65%, 2006년 67.3%, 2008년 68.9% 등으로 높아졌지만 2009년 68.2%로 주춤했다가 2013년 55.6%, 2014년 54.8%로 떨어졌다.

## 교육계 동향

### ■ 누리과정 예산갈등 계속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누리과정(취학전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사업)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시·도교육청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고 보육기관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소요액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누리과정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이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만을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으면서 추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 ■ 세계교육포럼…서울선언 채택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교육부가 세계교육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참가국들과 유네스코는 향후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9년의 초·



▲ 2015 세계교육포럼 둘째 날인 5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